농식품 품질 업그레이드…돈 되는 농업 '올인'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해 소득 창출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공공기관 구매 촉진도
24개 신기술 시범 추진…농외소득원 적극 개발

광양시가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선진농업 발판을 마련한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의 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해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아 6월께 시의회에 제출해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출센터 조감도

◇지역농업과 관광연계 기대=이번 조례에는 ▲지원 대상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과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 구매 ▲식품 홍보판매장 또는 교육관 설치 ▲농·특산물 가공·음식 분야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유통, 판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농산물마케팅과로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활성화 및 우수 식재료 생산으로 지역 농업과 외식산업·관광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심의위원 모집은 총 32명중 추천위원 13명을 제외한 위촉위원 19명을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심의위원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대상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농업·농촌 심의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과 보조사업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는 기능을 한다.

저온성 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 재배교육.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열린 농업·농촌심의위원회.

그동안 3개 분과 (농정특작, 기술보급, 산림자원)로 운영해오던 위원회를 4개 분과(농정기술, 농산물마케팅, 매실원예, 산림)로 개편해 시 조직과 업무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심의위원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관련단체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행정기관 사업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여야 한다.

◇24개 신기술 실증시범사업 추진=시는 최근 올해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24개 사업에 93개소의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바 있다.

올해 추진될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으로는 과수·특작분야에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 외 12개 사업 76개소, 채소·화훼분야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외 10개 사업 17개소로 총사업비 16억 92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시 준비서류와 사업 추진요령, 농가 숙지사항,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더불어 특히 보조사업 집행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보조사업비 집행규정을 교육했다.

이종우'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광양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지난 5일 광양읍 서천에서 어린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은어는 바다로 내려가 월동한 후 다시 모천(母川)으로 회귀해 산란해 수산자원 조성과 자연생태 복원에 기여한다. 〈광양시 제공〉

"은어야, 잘 자라서 돌아오렴"

백운산 계곡·하천 등 어린 은어 13만마리 방류

광양시가 백운산 계곡과 하천에 어린 은어를 방류해 수산자원 조성과 자연생태 복원에 발벗고 나섰다.

광양시와 전남 동부수협, 광양 토종어류보존회, 봉강면 청년회 등은 지난 5일 백운산 계곡과 광양읍 서천, 봉강면 서천, 옥룡면 동천 등지에 어린 은어 13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된 은어는 주변 하천 등지에서 성장하며 가을(9~11월)에 산란한다. 이어 부화된 어린 은어는 인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나고 3~5월께 다시 하천으로 올라와 가을에 산란한 후 생을 마친다.

광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 토산어종인 은어와 참게, 메기, 동자개 등 230여만 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친환경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광양제철 1기 설비 종합준공 28주년

철강 생산 경쟁력 확보 강력 의지 천명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7일 1기 설비 종합준공 28주년을 맞아 철강 본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1981년 금호도와 서취도 등 13개의 섬이 있던 456만평을 제철소 입지로 선정한 후 1985년 1기 설비를 종합 착공해 2년만인 1987년 5월 조강연산 270만t의 1기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현재 광양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제철소로, 임직원 6200여 명, 연강 조강생산 3700여만t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자동차강판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판 모형